

광주 유망기업들 한 자리에서 기술력 뽐냈다

'유망기업 제품 BtoB 1차 홍보간담회'서 투자·홍보기업에 '노동장' 증감소음 분석하는 AI·고독사 막는 생체신호 감지 매트리스 우울증 개선 모바일 플랫폼·1인 가구 범죄예방 기술 등 다양

광주 유망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투자·유망기업 앞에서 기술력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광주시 서구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주 유망기업 제품 BtoB 1차 홍보간담회'에는 유망기업 10곳과 투자·홍보기업, 제조·건설·도소매업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홍보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광주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2023 미래신산업 전환 맞춤형 지원사업' 중 하나다. 홍보간담회는 높은 기술력과 상품성을 보유하고도 기업 규모가 작은 탓에 홍보·마케팅에 역량이 떨어지는 지역 유망기업을 대상의 기술을 관련 업계에 소개하는 자리로, 총 10개 유망기업이 참가했다. 특히 AI(인공지능) 대표 도시인 광주 소재 유망 기업들답게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력을 선보였다. ㈜오트웰즈는 AIoT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전문 기업으로 재가 독거노인, 요양 병원 환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리스나 의자 타입의 압전센서를 달아 심박수와 호흡수를 측정한다. 특히 기존 신체에 부착해야만 측정이 가능한 생체

신호를 무구속·무자각 방식으로 수집·분석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긴급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오트웰즈의 제품은 이용자가 매트 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생체신호 정확도가 약 95%에 달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아이테크는 이웃 간 살인까지 부르는 증감소음을 AI로 분석한 기술력을 선보였다. 아이테크는 특정 세대가 발생시킨 증감소음의 발생 위치와 발생량을 분석해 이웃을 비롯한 이웃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를 관리사무소에 제공한다. 관리사무소는 이 지수를 소음 발생 세대의 비디오 인터폰, 모바일로 통보해 피해를 받는 다른 세대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도록 돕고, 자의적으로 증감소음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라라랩스는 우울증 증상개선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사용시 활용되는 음성·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의 우울증 정도를 파악하고, 결과에 맞는 음악과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위에 드러내기 힘든 질병인 우울증을 사용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울터팀은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치매

노인을 범죄에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했다. 울터팀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도난과 침입을 대비하는 방범 장치 제작기업으로, 위급상황에서 구조 신호와 앞선 48시간 동안의 동선을 전송하고, 어플에 미리 예약해둔 동선을 사용자가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 기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익히 알려진 ㈜조인트리는 광합성 미세조류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저감 및 산소발생을 통한 공기 정화 AI관리시스템을 선보였다. 조인트리의 공기정화 시스템은 30년생 낙엽송 100그루가 가진 공기정화효과로 현재 6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씨엔에스컴퍼니는 기능성 보안경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기존 보안경에 전자기능을 접목시켜 보호 역할 외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외에도 공기정화 살균기 빌트인 가전과 치과용 3D 의료기기, 인공지능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가진 기업들도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10개 기업을 포함한 50개 기업은 2023 미래신산업 전환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피보팅 사업전환', '해외 박람회 참가', 'R&D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받았다. 광주상의는 지역기업의 미래 신산업 진출현황과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원사업과 참여기업을 연계는 등 성과로 지역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4일 열린 '광주 유망기업 제품 BtoB 1차 홍보간담회'에서 기능성 보안경 제조업체 ㈜씨엔에스컴퍼니 관계자가 제품의 용도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박건호 ㈜오트웰즈 대표이사는 "2023 미래신산업 전환 맞춤형 지원사업 덕분에 고용 유지를 통한 기술개발에 힘을 수 있었다"면서 "이 밖에도 해외 박람회 참가 등 다방면에서 신생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채화석 광주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세계 경제불안, 고금리, 고환율, 고

물가 등으로 지역기업의 매출 급감, 고용률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아 이날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지역 유망기업에 신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되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출산을 늘어도...50년 뒤 인구 3622만명 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뒤인 2072년에는 3000만 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7만명이었다. 그러나 통계청은 2030년 인구가 5131만명으로 줄어든 뒤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돼, 2072년에는 3622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에서 2072년 기준 1.08로 반등한 중위 추계를 가정한 결과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을 포함한 인구 변동요인이 낙관적 시나리오(고위 추계)로 흘러갈 경우, 2072년 기준 총인구 4282만명으로 예상됐고 비관적 시나리오(저위 추계)는 3017만명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7년 합계출산율 반등 가정 2030년 5131만명...감소 시작 2072년 생산연령인구 45.8%로 예측했다. 중위 추계대로 흘러갈 경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의 71.1%(3674만명)를 차지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50년 뒤 45.8%(1658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50년 뒤 총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0~14세)는 6.6%에 불과하고, 노인(65세 이상)은 47.7%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구피라미드 형태도 현재 생산연령

인구에 속하는 30~50대가 가장 많은 항아리형에서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형태인 역삼각형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부양비는 40.6명으로 2~3명이 1명을 부양하면 됐지만, 2072년에는 총부양비가 118.5명에 달해 생산연령인구 1명이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까지 증가하게 된다.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은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최근까지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간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 '핑크박스' 전달

위생용품 등 2천만원 상당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핑크박스 with 광주은행'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총 2000만원 상당의 '핑크박스'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전달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김현희 광주은행 여성직원모임 개나리회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핑크박스 with 광주은행'은 광주은행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용품 구입이 힘든 지역 내 여성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과 광주은행 여직원

모임인 '개나리회' 회원들은 여성 위생용품, 물티슈, 찜질팩, 바디용품, 여성 청결제 등 29종류의 보건·위생물품으로 구성된 핑크박스를 전달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생용품 구입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매년 임직원들과 함께 '핑크박스 with 광주은행'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재능을 발휘해 멋진 학창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핑크박스 with 광주은행'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총 7500만원의 상당의 '핑크박스'를 전달한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제60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광주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수식에서 30억불 탑을 수상한 엔코테크놀로지 코리아를 비롯한 지역기업 22곳은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철강산업훈장을 수상한 한국알프스(주)의 신경영 책임매니저를 포함 11명은 수출 진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포상을 수상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이동원 본부장은 "올해 우리 무역이 자국 중심 경제 불복화, 공급망 리스크 등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난관을 마주했음에도 광주는 20개사가 넘는 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새해에도 새로운 수출 기록 달성에 도전할 우리 지역 기업들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전남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는 5억불탑을 수상한 주식회사 세



아엠에스 등 33개 지역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현대아이에프씨 주식을 수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회사 양국석 대표이사를 포함한 17명은 유공포상을 수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황인협 금감원 광주전남지원장 부임

황인협(사진) 전 금융감독원 감사인간리실장이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으로 부임했다. 황 인협 지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영훈고,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공인회계사인 황 지원장은 1995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했다. 지난 1998년 증권감독원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 후 보험준법검사국 팀장, 회계조사국 부국장, 감사인간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에 부임하게 됐다. 황인협 지원장은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와 실무협의 강화해 민원을 예방하는 한편, 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부당한 금융거래·불공정한

금융관행으로부터 지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544.18(+33.52)
- ↑ 코스닥 840.59(+11.28)
- ↓ 금리(국고채 3년) 3.258(-0.207)
- ↓ 환율(USD) 1295.40(-24.50)

7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신세계 지역 첫 '헌터' 팝업스토어 광주신세계 직원이 본관 1층 마련된 영국 부츠 브랜드 '헌터(HUNTER)' 팝업스토어를 찾는 고객에게 부츠를 선보이고 있다. 지역 최초로 선보이는 헌터 팝업스토어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헌터의 시그너처 제품인 레인부츠와 방한슈즈 키즈라인, 의류, 가방, 악세서리 등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